

중동 산유국의 에너지산업 현황 및 전망

해외정보분석실 임산호(shlim12270@keei.re.kr)

- ▶ 북미 지역이 2020년 이후 에너지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중동의 원유 수출국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음.
- ▶ 중동의 주요 생산국들은 원유 수출을 통해 대부분의 재정수익을 충당해왔던 기존의 전략에서 탈피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 ▶ 사우디를 포함한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은 대규모 정제·석유화학 프로젝트를 계획하고 있음. 또한 카타르와 같은 전통적인 가스 수출국 외에 사우디, 이라크, 이란도 천연가스 개발 및 회수증진을 위한 프로젝트를 진행 중에 있음.
- ▶ 중동 국가들은 2014~2035년까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총 1,690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 대부분의 중동 정부들이 보조금 문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가격조정이나 보조금 감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신 에너지 절약 등의 수요관리 측면에서만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 중기 동안 OPEC 원유의 수요 감소 및 원유가격의 정체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분석됨. 따라서 사우디를 제외한 OPEC 회원국들은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석유부문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현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할 전망이다.
- ▶ IEA는 2020년 이후 중동 상류부문의 투자 감소로 인해 향후 상류부문 생산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생길 수 있다고 분석함.
- ▶ 또한 2020년 이후 중동의 역내 가스수요가 크게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그러나 중동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은 대규모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낮은 역내 가스가격으로 인한 가스부문 투자 유인 부족으로 인해 지체될 수 있음.

1. OPEC의 석유생산 현황

□ OPEC 회원국의 석유생산 현황

- 지난 7월 19일 발표된 2014년 OPEC 통계 ‘Annual Statistical Bulletin’에 따르면, 2013년 OPEC의 석유 수출액은 전년 대비 약 8% 가량 감소했으며, 감소한 수출 규모는 약 960억 달러에 이릅니다.

※ OPEC의 2013년 석유 수출액은 1조1,120억8,500만 달러, 2012년 석유 수출액은 1조2,079억900만 달러임(Annual Statistical Bulletin, OPEC).

- 이는 OPEC의 원유 생산량이 2012년 약 32.42백만b/d에서 2013년 약 31.60백만b/d로 2.5% 감소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이중 중동의 원유 생산량은 2012년 24.10백만b/d에서 2013년 23.83백만b/d로 1.1% 감소함.
- 2013년 전 세계 원유생산 중 OPEC의 점유율도 2012년 44.6%보다 다소 하락한 43.4%였음.

“2013년 OPEC의 석유 수출수익은 전년 대비 약 8% 가량 하락했으며, 감소한 수출 규모는 약 960억 달러”

“북미 지역이
에너지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중동의 원유
수출국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중”

- 미 에너지정보청(EIA)는 2013년 OPEC 원유 생산량 감소가 사회적 지출비용 증가, 상류부문 투자위축과 생산 비용증가 등에 기인했으며, 리비아와 나이지리아 등 아프리카 국가들의 생산량 감소 영향이 크다고 밝힘.
- 한편, 2014년 상반기 OPEC의 석유 생산량은 29.49백만b/d로 전년 동기 대비 70만b/d 감소함.
- 이와 관련 EIA는 2014년 7월 단기에너지전망 ‘Short Term Energy Outlook’에 기초해 이란을 제외한 OPEC 회원국의 2014년 원유 순 수출수익이 전년 대비 약 6% 감소한 7,740억 달러, 2015년 순 수출수익이 7,230억 달러로 점차 감소할 것이라고 예상함.
 - ※ 2013년 OPEC의 원유 순 수출수익은 8,260억 달러였음.
- EIA는 OPEC 비회원국의 원유 생산이 2014~2015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며 이에 따라 유가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해당 기간 동안 OPEC의 수출액이 줄어들 것으로 분석함.

□ OPEC 회원국의 원유 수출량 변화 및 시장점유율 전망

- 북미 지역이 2020년 이후 에너지 순수출국이 될 것이라는 전망이 확산됨에 따라, 중동의 원유 수출국들에게는 새로운 시장을 찾아야 한다는 부담감이 가중되고 있음.
 - 북미 지역에서 경질원유인 타이트 오일의 생산이 증가하면서 아프리카산 경질원유의 수입이 감소했으며, 중동 지역으로부터 직접 수입되는 원유 물량 역시 감소할 전망이다(인사이트 제14-27호(8.1일자) p.21참조).
 - 북미 지역에 초점을 맞춰 수출 프로젝트를 추진해왔던 원유 생산국들은 점차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을 도모하게 됨.
- IEA의 ‘Medium Term Oil Market Report(2014)’에 따르면 2013~2019년 OPEC의 원유 생산능력은 약 2.08백만b/d가 증가해 37.06백만b/d에 이를 전망이다. 이는 2013~2019년 동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전 세계 원유생산능력의 약 23%에 해당함.
 - OPEC의 원유 생산능력 증가분의 약 60%가 이라크의 생산능력 확대에 기인할 전망이다.
 - OPEC 비회원국의 원유 생산능력은 2013년 54.7백만b/d보다 약 6.2백만b/d 증가해 2019년 60.9백만b/d로 늘어날 전망이다. 증가분의 절반 이상이 북미의 경질유, 캐나다의 오일샌드 생산 증가에 기인함.
 - IEA는 ‘World Energy Outlook(2013)’에서 전 세계 원유생산 중 OPEC의 점유율이 2014년 약 43%에서 OPEC 비회원국의 원유 생산능력 증가에 따라 2020년에는 약 41%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함. 그러나 2020년 이후 점유율이 다시 증가해 2035년에는 46%까지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이에 따라 중동의 주요 생산국들은 원유 수출을 통해 대부분의 재정수입을 충당해왔던 기존의 전략에서 탈피해, 수익원을 다변화하기 위한 전략을 추진하고 있음.

2. 중동 주요 산유국의 에너지산업 발전 전략

□ 정제·석유화학산업 경쟁력 확보 위한 프로젝트 추진

- OPEC은 2013년 기준 약 4.5백만b/d의 석유제품을 수출했으며 이중 68.5%인 약 3.1백만b/d가 아·태지역 국가들에 수출됨.
 - ※ 2013년 OPEC의 정제용량은 2012년과 비교해 4.9% 증가한 10.393백만b/d임.
 - OPEC에서 생산된 석유제품 중 유럽으로 수출되는 물량은 0.6백만b/d로 14%, 북미로 수출되는 물량은 0.2백만b/d로 5.2%에 불과함.
 - 업계 전문가들은 제9차 WTO 각료회의에서 체결된 Bali Package가 올해 7월부터 발효됨에 따라 중동 국가들의 석유제품 수출량이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분석함.
 - ※ Bali Package는 통관절차 간소화를 통한 무역원활화, 농업 보조금 축소, 저개발 빈곤국 지원 확대를 통해 무역 진입장벽을 낮추기 위한 합의로 지난 2013년 말 WTO 각료회의에서 체결됨.
- IEA의 ‘Medium Term Oil Market Report’는 사우디를 포함한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이 대규모 정제부문 프로젝트들을 추진하고 있다고 분석함.
 - IEA는 중국을 포함한 OECD 비회원국들에서 정제부문 용량확대 전망치를 축소했으나, 중동 지역의 정제부문은 계획대로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밝힘. 이는 중동 지역의 석유제품 수요 증가 및 비-원유부문 수출을 통한 수익 증대 목표에 의한 것으로 분석함.
 - ※ 중동 지역의 석유제품 수요 증가는 2019년까지 약 1.8백만b/d가 증가할 전망으로 세계적으로도 가장 빠른 수준임.
 - IEA는 전 세계의 정제용량 확대 전망을 지난 2013년 보고서의 9.5백만b/d보다 축소된 7.7백만b/d로 전망했으며, 2019년까지 중동 지역에서 2.2백만b/d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함.
 - 2019년까지 확대될 예정인 전 세계 정제용량의 약 30%가 중국에, 약 26%가 중동에 분포됨.
- 영국 FACTS Global Energy의 분석에 따르면 사우디의 Satorp, Yasref, Jazan 정제시설, UAE의 Ruwais 정제시설, 이라크의 신규 정제시설 건설이 완료되어 본격 가동되는 2020년 이후에는 중동이 주요 석유제품 수출지역으로 부상할 예정임.
 - 중동의 대규모 정제·석유화학 단지들은 아·태지역으로 석유제품을 수출할 뿐

“사우디를 포함한 쿠웨이트, 이란, 이라크 등 중동 산유국들이 대규모 정제부문 프로젝트들을 추진”

아니라, 유럽 시장을 타겟으로 Euro IV, Euro V와 같은 고품질의 석유제품을 생산함으로써 아시아, 러시아, 미국의 정제시설들과 경쟁할 전망이다.

〈 중동 주요국의 정제시설 확충 프로젝트 〉

정제시설	국가	용량	가동예정	비고
Satorp	Saudi	40만b/d	2014년 말	
Yasref	Saudi	40만b/d	2014년 말	
Jazan	Saudi	40만b/d	2017년	
Ruwais	UAE		2014년 말	
Persian Gulf Star	Iran	36만b/d	3개 시설이 각각 2017,2018,2019년	컨덴세이트 공정
Al-Zour	Kuwait	61.5만b/d	2019~2020년	
Ras Laffan	Qatar	14.6만b/d	2016년 말	컨덴세이트 공정
Sohar	Oman	19.7만b/d	2016년	현 11.6만b/d 용량에서 확대
4개의 신규 정제시설 건설	Iraq	74만b/d		4개 정제시설 건설 및 설비 현대화에 260억 달러 투자

자료 : MEES

- 또한 GCC 국가들은 대규모 석유화학 프로젝트들을 다양화함으로써 북미 셰일 가스 붐에 대응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 가스공급 부족을 겪고 있는 GCC 국가들의 상황과 맞물려 북미의 셰일가스 혁명은 GCC 국가들이 원료 공급측면에서 가지고 있던 강점에 타격을 입힘.
 - 특히 지난 10여년간 GCC 석유화학 부문에 수십 억 달러의 투자를 해왔던 Chevron Phillips, Dow, ExxonMobil과 같은 주요 석유화학기업들이 미국으로의 투자 확대를 고려하고 있음.
 - 이에 따라 GCC의 석유화학기업들도 미국에서의 투자를 확대하는 전략을 채택함. 카타르의 국영석유기업인 QP는 ExxonMoil과 미국 비전통자원 개발을 위한 공동투자협정 MOU를 체결함.
 - 이외에도 외국 석유화학기업과 협력함으로써 새로운 기술 개발 및 효율성을 도모하는 한편, 이들의 제품을 사용하는 글로벌 제조업자들과의 연계를 추진하기도 함. 사우디 국영석유화학기업 SABIC은 중국, 인도와 공동으로 기술을 개발하기 위한 R&D센터를 각각 중국과 인도에 개설한 것으로 알려짐.

□ 가스부문 개발 촉진 및 관련 정책 추진

- 가스개발 및 가스가격과 관련한 정책수립은 중동 국가들이 에너지와 관련해 겪고 있는 난제 중 하나임. 카타르를 제외하고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이 가스공급문제를 겪고 있음.

“가스개발 및 가스가격과 관련한 정책수립은 중동 국가들이 에너지와 관련해 겪고 있는 난제 중 하나 ”

- IEA의 통계에 따르면 중동 지역에는 전 세계 천연가스 확인매장량 6,845.57Tcf의 약 41%에 해당하는 2,823.23Tcf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이 분포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그러나 2012년 기준으로 중동 지역의 천연가스 생산량은 전 세계 생산량의 약 16%인 19,292Bcf에 불과함. 천연가스 생산국도 카타르, 이란, 사우디, UAE, 오만 등 일부 국가에 편중되어 있음.
 - 중동 국가들이 천연가스 탐사·개발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로는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 때문인 것으로 알려짐.
 - 중동의 현지 기업들이 저렴한 원료 가격에 의존함에 따라, 가스 가격자유화에 대해 강하게 반발함. 이에 따라 중동 정부들은 외국개발기업들과의 가스 가격협상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중동에서 가장 주요한 가스 생산국은 카타르와 이란으로, 양국은 중동의 천연가스 확인매장량의 70% 이상을 보유하고 있음. 이외에 예멘, 오만, UAE 등에서 LNG를 수출하고 있음.
- 카타르는 중동 최대의 가스 수출국이자 세계 최대 규모의 LNG 수출국으로, 2013년 카타르의 천연가스 확인 매장량은 890Tcf에 이룸(IEA). 한편, 이란에는 카타르의 매장량을 훨씬 상회하는 1,187Tcf의 매장량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IEA), 미국과 EU의 경제제재로 인해 개발이 지체되고 있음.
 - 2020년 이후에 카타르는 미국, 캐나다를 포함해 모잠비크와 탄자니아 같은 동아프리카 국가 등 신흥 LNG 수출국들과 경쟁할 전망이다. 또한 러-중 가스 협정체결로 인해 아시아 시장으로 공급되는 러시아산 가스 규모 확대가 예상됨에 따라, 아시아 시장에서의 점유율 확대에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임.
 - 이란도 South Pars 해상 가스전 개발을 추진함으로써, 자국 내 수요를 충족하고 인접국인 오만과 쿠웨이트로 가스관을 통한 수출을 계획하고 있음. 이를 위해 이란 정부는 국제사회와의 핵협상을 진행 중이며, 석유·가스개발과 관련해 외국기업들과의 계약방식을 기존의 바이백(buy-back)방식에서 기업들에 보다 우호적인 방향으로 수정 중임.
- 이외 이라크는 대부분의 가스가 유전에 수반되어 있는 수반가스로 부존되어 있으며, 현재 관련 인프라 부족 및 기술 부족으로 유전에서 생산되는 수반가스 대부분을 연소(flaring)하고 있음.
- EIA에 따르면 이라크에는 약 112Tcf의 천연가스가 매장되어 있으며, 이중 약 60%가 이라크 남부 지역에 부존되어 있음. 특히 이라크 천연가스 자원량의 약 3/4이 수반가스의 형태로 존재함.
 - 이라크 남부의 Rumaila, West Qurna-1, Zubair 등 대형 유전에는 대규모 수반가스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노후화된 인프라 문제로 인해 유전에서 대부분의 수반가스를 연소시키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중동 국가들이 대규모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 탐사·개발문제를 겪고 있는 이유로는 개발에 들어가는 비용 때문”

- 가스 연소량을 줄이고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이라크 정부는 Shell과의 합작 투자를 통해 Basrah Gas Company를 설립함. 이에 따라 수반가스 회수량을 2Bcf/d로 확대하기 위한 프로젝트를 추진 중임.
- 이외에도 이라크 정부는 남부 유전들을 중심으로 한 인프라 투자를 통해 원유와 천연가스 생산을 모두 증대시키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나, 최근 수니파 극단주의자 단체 Islamic State(IS)와의 교전이 장기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는 등 정치적 불안정성은 여전히 남아있음.
- 세계적으로 발전용 연료를 석유에서 가스로 전환하고 있는 추세임에도, 사우디를 제외한 대부분의 중동 국가들은 이에 역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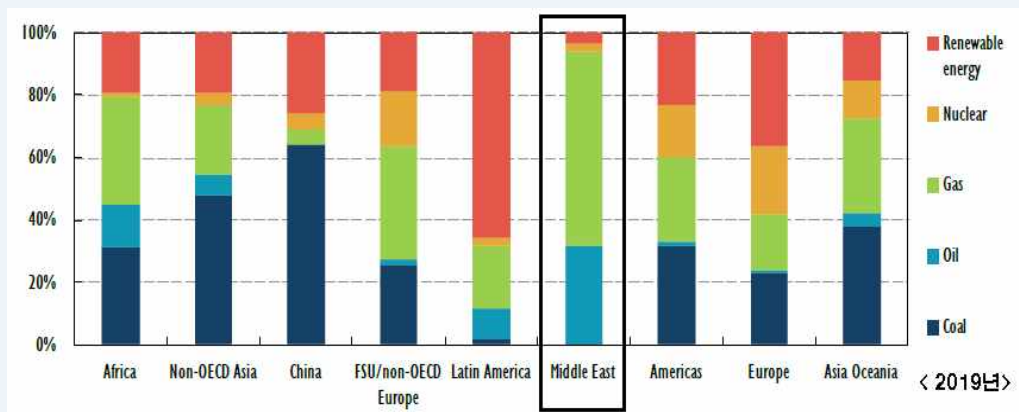
〈 2000~2019년 중동 지역 발전 믹스 〉



자료 : Medium Term Oil Market Report(IEA)

“발전 원료로 원유를 사용하는 추세는 향후 5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만 증가할 전망 ”

〈 2019년 각 지역별 발전 믹스 〉



자료 : Medium Term Oil Market Report(IEA)

- 상대적으로 풍부하고 저렴한 석유 자원을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다른 지역의 국가들에 비해 중동 지역에서 발전용 연료를 석유에서 천연가스로 전환하고자 하는 유인이 부족함.
- IEA의 ‘Medium Term Oil Market Report’에 따르면, 발전 연료로 원유를

사용하는 추세는 향후 5년 동안 중동 지역에서만 증가할 전망이다.

- 중동 국가들 대부분이 충분한 가스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많은 중동 국가들에서 발전부문에서의 석유 의존을 더욱 심화시킬 것으로 전망됨.
- 한편, 사우디는 원유 수출량을 최대로 유지할 수 있도록, 자국에서 생산되는 가스 대부분을 발전용으로 소비하고 있음.
 - ※ 사우디는 현재 자국에서 생산된 가스 전량을 내수용으로 사용하고 있음. BP통계(2014)에 따르면, 사우디는 2013년 천연가스 약 103Bcm을 생산하여 전부 자국에서 소비함.
- 사우디 정부는 발전용 및 산업용 가스 비중을 확대함으로써, 자국 석유자원의 수출물량을 확보하고, 유가를 배럴당 100달러 선으로 유지하고자 함. 이에 따라 가스자원 개발의 중요성이 커짐.
- 이에 따라 사우디 국영석유기업 Saudi Aramco는 페르시아 걸프만의 해상 가스 자원 개발에 중점을 두면서, 그동안 미탐사 지역으로 분류되었던 홍해, 북부 및 서부지역, Nafud 분지 등에 대한 탐사 작업을 추진함. 또한 자국의 비전통 가스자원 탐사 및 개발도 추진 중에 있음(인사이트 제13-44호(2013.12.6일자) p.16 참조).

□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투자 확대

- IEA의 ‘World Energy Investment Outlook(2014)’에 따르면 중동 국가들은 2014~2035년까지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해 총 1,690억 달러를 투자할 전망이다.
- 그러나 이 투자액은 2014~2035년 동안 에너지효율 증진을 위한 전 세계 투자금의 약 2%에 불과한 것으로 알려짐.
 - ※ 2014~2035년 에너지효율 개선을 위한 전 세계 투자액 중 27%는 EU, 20%는 북미, 20%는 중국이 차지하고 있음. 이들 지역은 최종에너지소비가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지역이며, 세계 최대의 자동차 시장이기도 함.
- IEA는 중동 국가들과 같은 신흥 경제에서 에너지효율에 대한 투자 증진이 어려운 이유에 대해 통합적인 정책 목표 부족, 자금조달 부족, 화석연료 보조금을 줄이기 위한 유인 부족 등을 꼽음.
- 특히 중동의 정책결정권자들은 보조금 문제 개혁과 관련해 경제적인 논리와 정치적인 논리 사이에서 딜레마를 겪고 있음.
- 대부분의 중동 정부들이 보조금 문제의 개혁에 대해서는 공감하고 있으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가격조정이나 보조금 감축과 같은 근본적인 문제해결 대신 에너지 절약 등의 수요관리 측면에서만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 추진하고 있음.
- 석유·가스 주요 생산국인 사우디, UAE, 카타르는 중동에서도 가장 활발하게 에너지효율 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국가임.
 - 사우디는 2010년 ‘사우디에너지효율센터(SEEC)’를 설립하고 에너지효율과

“중동 정부들은 보조금 개혁의 필요에 대해서는 공감하나, 정치적 입지가 흔들릴 것을 우려해 에너지수요관리 정도로만 에너지효율프로그램을 추진”

관련해 전력소비량 감축에 대한 검사·교육·규제 마련 등을 담당하게 함. 또한, 에너지절약을 확대하기 위해 이를 담당하는 부처를 신설하고, 에너지절약법(Energy Conservation Law) 등의 법안 마련을 추진하고 있음.

- 카타르는 ‘비전 2030’과 ‘카타르국가개발전략 2011~2016’ 등에 따라 에너지 집약도를 낮추기 위한 캠페인을 추진하고 있음. 이 전략에 따라 ExxonMobil과 공동으로 Al Khaleej 가스발전소와 RasGas LNG 트레인 등에서 에너지 효율을 개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하고, Chevron 등 주요 에너지기업과 합작해 ‘지속가능한 에너지효율센터’를 설립하기도 함.
- UAE는 2011년 ‘국가에너지효율·절약프로그램’을 마련하고 태양에너지 등 재생에너지 부문 투자를 확대하는 동시에, 건물단열기준 강화와 자동차연비 기준 강화, 담수화부문 투자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에너지수요의 30%를 감축하겠다는 목표를 설정함.

3. 향후 전망

- Petroleum Intelligence Weekly(PIW)에서는 중기 동안 OPEC 원유의 수요 감소와 원유 가격의 안정화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분석함.
 - 이러한 추세는 중동 지역에서의 인구증가, 사회적지출비용 증가, 상류부문의 투자비용 증가와 맞물려 진행됨에 따라 중동 국가들에게 구조적인 개혁이 요구될 전망이다. 이외에도 중동 국가들이 가지고 있는 정치적 불확실성이 주요 리스크 중 하나로 부각되고 있음.
 - 따라서 PIW에서는 사우디를 제외한 OPEC 회원국들이 투자를 확대하기 위해 자국 석유산업에서의 효율성을 도모하는 등 현재보다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밝힘.
- 2020년 이후에는 중동지역 투자 감소로 인해 향후 상류부문 생산 목표에 도달하는 데 어려움이 초래될 수 있다는 분석임.
 - IEA에서 발표한 ‘World Energy Outlook(2013)’에 따르면, 세계 에너지 수요 증가의 약 90%가 OECD 비회원국에서의 수요 증가에 기인하며, 이중 중국과 인도가 총 수요증가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55% 이상일 것으로 전망됨.
 - 향후 10년간은 중국의 수요 증가, 2025년 이후에는 동남아시아와 인도의 수요증가가 이를 견인할 전망이다.
 - 따라서 세계 석유·가스의 수요 증가를 충당하기 위해 중동 지역의 상류부문에 대규모 투자가 요구될 전망이다.
 - 그러나 세계 상류부문 투자에서 중동 지역의 투자가 차지하는 비중은 2014~2035년 동안 약 2조 달러로 예상되며, 이는 전체의 약 12%에 불과함.
 - 이에 따라 중동지역의 상류부문에 추가 투자가 필요함. 그러나 석유·가스개발에 필요한 비용 증가와 상류부문 개발의 주요 역할을 할 이라크와 이란에

“중기 동안 OPEC 원유의 수요 감소와 원유 가격의 정체 추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분석”

서의 정치적·사회적 불안정이 지속될 경우 향후 상류부문 투자부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

- 한편, 중동 지역 상류부문에 대한 투자가 부족해질 경우 석유 수출수익의 감소 또는 정체, 국내연료가격에 대한 보조금 정책의 유지 등이 동반될 수 있으며, 이럴 경우 2020년 이후에는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량이 IEA가 발표한 New Policies Scenario의 전망과 비교해 최대 2백만b/d까지 낮아질 수 있다는 분석임.

※ IEA는 New Policies Scenario에서 중동 지역의 원유 생산량을 2020년 약 28백만b/d, 2030년 32백만b/d, 2035년 34백만b/d로 예상함.

- 이 경우 IEA는 원유공급부족 상황이 발생함으로써, New Policies Scenario에서 2020년 중반 원유가격으로 예상하고 있는 배럴당 116달러보다도 높은 수준으로(배럴당 약 130달러) 가격이 형성될 수 있다고 분석함.

- IEA의 'World Energy Outlook(2013)'에서는 중국과 인도를 필두로 아시아 지역의 에너지수요 증가와 함께, 중동의 가스수요가 OECD 국가 전체의 가스수요 이상으로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함.

※ IEA는 2035년까지 중동의 천연가스 수요가 약 300Bcm 증가할 것으로 전망함.

- 이에 따라 2020년 중동 지역은 2위의 천연가스 소비 지역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으며, 2030년에는 3위의 원유 소비 지역이 될 것으로 분석함.
- 가스수요가 증가하는 원인으로는 다른 지역들과 유사하게 장기적으로는 중동의 발전용 가스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며, 담수화 및 석유화학 프로젝트가 확대됨에 따라 원료로 사용되는 가스 수요도 증가할 전망이다.
- 그러나 중동 지역의 천연가스 개발은 대규모 매장량에도 불구하고 낮은 국내 가스가격으로 인해서 가스부문 투자 유인이 부족하기 때문에 지체될 수 있음.
- 이러한 이유로 UAE와 쿠웨이트는 현재 가스를 수입하고 있는 상황임. 따라서 중동 지역의 가스수요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동 국가들에서 가스 및 전력 가격과 관련된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이다.

“중동 지역의 가스수요 증가가 가속화됨에 따라, 중동 국가들에서 가스 및 전력 가격과 관련된 정책이 재검토될 가능성이 더욱 커질 전망”

참고문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세계 에너지시장 인사이트」, 각 호

Brookings Institution, *Low Carbon Energy Transitions in Qatar and The Gulf Cooperation Council Region*, 2014.2

OECD/IEA, *World Energy Outlook*, 2013

OECD/IEA, *Medium Term Oil Market Report*, 2014.6

OPEC, *World Oil Outlook*, 2013

OPEC, *Annual Statistical Bulletin*, 2014.7

Economist Intelligence Unit, “Static but Significant”, 2014.8.20

Middle East Economic Survey(MEES), “IEA World Energy Investment Outlook:
Can We Still Count on the Middle East?”, 2014.6.13

MEES, “Mideast Refining Capacity Boost Underscores Growing ‘Hub’ Role”,
2014.6.27

MEES, “End of OPEC’s Revenue Golden Age?”, 2014.8.1

MEES, “Gulf States Eye Demand Management But Progress Slow”, 2014.8.1

Petroleum Intelligence Unit, “Opec Revenue Slumps Shows Need for Reform”,
2014.8.11

Platts, “Gulf Cooperation Council Petrochemicals Exports to Hit Record High
in 2014”, 2014.2.3.

Oil&Gas Journal, “EIA: OPEC’s 2013 Oil Export Revenues Fall 7%”,
2014.7.28